

제주4·3사건이 제주불교계에 미친 영향

한금실*

韓錦實

<要旨>

本論文は1947年から1954年まで済州地域で発生した済州4・3事件時期、済州仏教界の被害実態を調査した研究である。解放前後の記録上登場する寺の数は大抵100ヶ所余りである。この中、4・3事件で寺が破屋・全焼したり、人命被害が確認された寺は35ヶ所であり、8ヶ所はこの基準に当たらない程度の被害で止まった。残り約50ヶ所余りの寺は行方を全く探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寺が移転した跡がないことから、この50ヶ所余りの寺も被害をうけ廃寺したと推定される。

4・3事件で済州仏教界は寺の殿閣だけでなく僧侶らの犠牲、主要文化財の消失など仏教界が持っていた既存の諸規範をあっという間になくすという初めての法難期を体験することになる。

済州仏教が4・3勃発の中、このように深刻な被害をうけた原因は敵性地域であると宣言された山間に大部分の寺が位置したからである。しかし、海岸に位置した寺もやはり同じ被害をうけたという点から、仏教界の被害原因を地理的な条件だけで把握するのは限界がある。被害原因に対しては今後深層的な研究が後押し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在までの研究結果を通じて下せる結論は、当時の済州仏教が済州社会の流れに同調して、済州道民と共同の運命を選択したためだと判断される。その具体的な内容は寺の被害事例で確認できる。

주제어: 제주불교(Jeju Buddhism), 제주4·3사건(4.3 accident in Jeju), 근현대 제주불교(Modern Jeju buddhism), 제주사찰(Buddhist temple in Jeju)

I. 머리말

제주 4·3사건(이하 4·3으로 약칭)¹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사 전공, 박사과정 1년차

¹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p533-540.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주4·3’의 명칭은 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불교 역시 이 4·3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4·3시기를 통틀어 불교계에서는 기존의 제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초유의 법난기(法難期)이라고 하겠다. 1945년까지 제주불교 관련기록에 나타난 사찰의 수는 대략 100여 곳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4·3으로 피해를 본 사찰은 35곳이며, 16명의 승려들의 인명피해도 확인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100여 곳의 사찰 중에서 약 8곳의 사찰만이 파옥되거나 불태워지는 피해를 면했는데, 나머지 50여 곳은 그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² 또한 당시 승려나 사찰의 분위기가 일반 속인들과 함께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생활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던 사찰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제주불교계의 피해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 실제 근대시기에 대대적인 포교활동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성숙된 불교운동을 정착시켜 나갔던 제주불교는 4·3 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어버렸다.

4·3 이전 근대 제주불교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었다. 조선시기 유림의 탄압으로 민중의 삶 속에서 역량을 쌓아오던 제주불교는 근대 초 활동의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민족사상으로 이어져 제주사회에서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1918년 서귀포 법정악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을 비롯한 강창규, 방동화 등 수명의 승려들이 7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국권회복을 외친 법정사 항일운동이었다. 이 흐름은 항일운동가인 김석윤이 1934년 범어사 제주포교소 월정사를 창건하여 그곳에 1938년 9월 선학원 후신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 제1지방분원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달리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협조 하에 양적발전을 꾀하게 되는 또 다른 흐름이 형성된다. 그것은 조선불교대회 법사였던 이회명이 1924년 제주불교협회를 창설하면서 본격화된다. 협회의 창설은 그동안 자생적인 활동으로 성장해온 제주불교가 육지부의 중앙불교와 직접 연계를 맺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분기점이 되는데, 이는 제도권에 의한 실질적 지도 하에 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 이후 이 흐름은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심전개발운동으로 이어져 대흥사에서 파견된 문

² 4·3시기 제주불교계의 피해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제주도편』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는 오성스님의 제주불교연구회에서 집필을 담당하였는데, 필자는 여기서 30곳의 사찰연혁과 피해상황을 정리기록하였다.

³ 오성(2006) 「제7장 종교/ 제2절 불교」 『제주도지』 6, 제주도, p996-997.
이경순(2002) 「이회명과 제주불교협회」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 :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출간기념세미나』 제주불교사연구회, p37-46.

학연과 백양사의 이학암, 최청산, 이성봉, 김신산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제주불교의 이 상반된 두 흐름은 이후 호남지역에서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다 백양사포교소로 부임해오는 이일선을 비롯한 제주 출신 승려 이세진, 오이화, 이성봉 등에 의해 제주불교연맹(濟州佛敎聯盟)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39년에 출범한 제주불교연맹은 일제의 심전개발운동과 맞물려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지만, 동시에 제주불교의 자치와 통일을 이끌어내어 독자적 역량을 다져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1945년 식민지체제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제주불교계는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朝鮮佛敎革新濟州僧侶大會)’를 개최하여 왜곡된 불교풍토 정화와 불전강원 설치, 모범총림 창설, 교무원 운영 등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에 나서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근대 제주불교의 대내외적 발전과 해방 후 적극적인 개혁의지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은 결과적으로 4·3시기 제주불교계가 피해를 입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포교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그에 비례하여 피해실태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또한 타 종교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사례 보고가 없는 반면, 제주불교의 경우는 불교교단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집중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요인은 근대 제주불교가 제주도민과 매우 밀착된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 새롭게 일고 있던 혁신적인 불교운동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지도층 승려들의 개혁적인 활동과 사회참여의 모습을 통해 4·3시기 제주불교의 위상과 그에 비례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당시 상황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945년 제주승려대회와 제주불교청년단결성대회의 회의록이 적혀있는 『법계』, 1940~1950년 초까지 제주교무원에서 승려 교적과 명부·사찰관계의 자료를 모아놓은 『교적부』, 『교도책임자명부』, 『연혁철』, 『사찰등록철』, 『총무국』 등의 1차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밖에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문헌자료와 제주불교계 노장 승려들의 증언, 속가 친족 및 각 마을주민 등의 증언들을 참고적으로 활용하였다.

II. 해방직후 제주불교계의 흐름

근대시기 제주불교는 1920년부터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수십 곳의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승가 내부 혹은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개혁적인 불교운동들이 전개되었다. 1927년 서귀포 하원리에 ‘소년명진회(少年明進會)’를 창설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야학운동과 1930년대 함덕리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외팔절의 농촌계몽운동, 제주선원을 탄생시킨 전통 한국불교 회복운동, 그리고 대각사 승가교육활동과 서관음사에서 행해진 불교혁신운동 등이 대표적인 제주불교운동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근대 제주불교운동의 성과는 해방 후 그대로 이어져 제주불교계에 혁신의 바람을 보다 현실화시켜낸다. 그것은 약 두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1945년 1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朝鮮佛敎革新濟州僧侶大會)’로 표출되었는데, 이 대회는 각 사찰의 대표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 대웅전에서 열렸다.⁴ 여기서 제주불교는 기존 타 지역에 소속된 말사 위치에서 벗어나 제주도 독자적인 제주교구를 성립시켰으며 과거 친일행적을 반성하고 자주적인 불교발전을 기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대회에 상정된 의안을 살펴보면, 건국정신(建國精神) 진작, 사찰정화(寺刹淨化), 의식개혁, 범려품위(法侶品位) 향상, 사찰재산 정리, 대중불교 실현, 교구자원(敎區資源) 확립, 불교 전문강원 설치, 인재 양성, 모범총림(模範叢林) 창설, 교무원(敎務院) 운영, 중앙교무원 대표 파견, 포교기관 월간지 발간 등이었다. 특히 이중에서는 당시 중앙 불교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던 승려의 대처육식 금지, 사찰경제 공개 운영 등의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해냈으며, 불교 전문강원의 설립, 모범총림의 건설 등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였다.⁵

이와 함께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이일선, 오이화, 원문상 등 승려들의 활약도 컸다. 특히 1920년대 야학운동을 펼쳤던 원문상의 경우는 1945년 11월 30일 개최된 ‘조선불교혁신 제주청년단대회(朝鮮佛敎革新 濟州靑年團大會)’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⁶ 곧바로 제주승려대회가 성사되기까지 중앙 불교계와의 연계를 맡아 활동하면서 제주승려대회 임시부의장 및 제주교무원의 총무과장을 역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는 1947년 9월 서귀포 중문중학원(中文中學院) 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중문중학원은 그가 운영했던 야학 장소인 하원리의 중문면 소재지에 위치한 비인가 사설 중학교과정의 교육기관이다. 이 중문중학원은 현 중문중학교의 전신으로, 당시 중문면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과정을 교육하던 곳이다. 이곳의 설

4 불교청년단(1945) 「조선불교혁신 전국승려대회 회의록」 『법계』

5 김광식(2000) 「해방 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p215-249.

6 앞의 『법계』

립자는 원문상의 동향(同鄕) 후배이며 야학동지였던 이경주이며, 1940년대 후반 목조 건물로 신축하고 1950년 4월 2일에 문교부로부터 '부문중학교'라는 교명의 정식 중학교로 인가받았다. 원문상은 여기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승려이자 교육자로서 제주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일선은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서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주교무원이 탄생하자 교무과장을 맡는 등 해방공간의 제주불교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일선은 1920년대 사찰령 철폐운동과 호남지역의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 오다가, 1930년대 후반 제주 포교사로 부임을 받고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39년 4월 오이화, 이세진, 이성봉, 오일화, 방동화 등과 함께 근대 제주불교의 최초의 통일기구인 제주불교연맹(濟州佛教聯盟)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4·3사건에 불교계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하였다.

그 외에도 제주강원의 강주로서 제주청년승려들의 스승이었던 이세진 또한 제주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세진은 1942년 제주시 도평리에 서관음사(西觀音寺)를 창건한 후 도량 내에 사찰 재정을 확보할 기와공장을 세웠다. 기와공장은 이세진과 청년승려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승속(僧俗)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유기적인 관계 하에 운영되었다.

서관음사의 이러한 파격적인 사찰운영의 취지는 다름 아닌 승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승가의 자주성 확보와 나아가 이세진이 제주불교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전문적인 불교전통강원 설립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의존적 구조 하에 놓여있던 제주불교계의 제 기반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출가수행자도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외부의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포교 및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제시된 것이었다.

이 혁신운동은 제주사회와의 자연스런 활동의 연계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3이 발생한 직후 이세진이 인민유격대 도당사령부 수뇌부에서 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제주불교 대표승려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은 당시 제주사회에서 불교계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아울러 4·3시기 전후 제주불교계가 제주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Ⅲ. 제주불교계의 피해현황

2.1 제주불교계 피해실태와 원인

제주불교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시기는 1948년 11월이다. 이 시기는 사태의 유행기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을 결행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선포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초토화 작전의 사전 조치로 제주읍내 지역 유지들에 대한 일제검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출신의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들이 불법 처형되었고, 그 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사이 백여 명의 9연대 군인들과 20명의 경찰들이 희생되었다.⁷

1948년 11월 17일에는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어 본격적으로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하루에 백여 명이 넘는 대량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제주도 곳곳의 중산간 마을들이 방화되었다.

제주도의 지형상 토벌대가 지척한 5km 이상의 경계는 해안마을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한 해안마을조차도 무장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마을마다 성을 쌓게 하여 주민들을 차단하고 마을 밖 출입도 통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인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사찰의 경우는 자연히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에 의한 소개(疏開)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겨진 시설물도 무장대에게 이용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미리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폐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대부분의 사찰은 소각되거나 파괴되어 폐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관음사, 법화사를 비롯한 제주도내 주요 사찰들이 이 시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철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불교계의 피해상황을 요약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⁷ 강성현(2002)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47-53.

<표 1> 제주4·3 시기 사찰별 피해현황⁸

지 역	사찰명	소 재	피해 내용	가해자	시기
제주시	관음사	제주시 아라동	사찰 전소(全燒), 주지 오이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토벌대	1949.2.12
	대각사	제주시 이도동	원문상 사망	군경	1950 (예비검속)
	백화사	제주시 아라동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2.21
	불탑사	제주시 삼양동	대웅전, 요사 등 파옥	토벌대	1948.11
	서관음사	제주시 도평동	사찰 전소 이세진, 상좌 고제선 사망	토벌대	1949.1.3
	석굴암	제주시 노형동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1
	소림사	제주시 아라동	사찰 전소	토벌대	1949.2
	용장사	제주시 도평동	사찰 전소 주지 백인수 사망	토벌대	1949.1.3
	원당사	제주시 삼양동	목조 대웅전 외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1
	월정사	제주시 오라동	사찰 전소 김덕수 사망	토벌대	1948.12.10 1949.2.23
	정광사	제주시 일도동	이일선 사망	군경	1950 (예비검속)
	고관사	조천읍 조천리	강제매각	조천읍 면장	1948.11
	고운사	애월읍 고내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1
	광룡사	한림읍 상대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1
	귀이사	애월읍 상귀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1
	극락사	애월읍 상귀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0
	금봉사	구좌읍 하도리	사찰 전소, 법당 일부유지, 주 지 이성봉 사망	토벌대	1948.11.21
	금천사	애월읍 어도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1
	묘음사	애월읍 어음2리	불상 1점과 일부 탕화 제외하고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1

제주시	백양사북촌포교소	조천읍 북촌리	사찰 전소, 주지 김유신 사망	토벌대	1949.1.27
	보광사	애월읍 고내리	사찰 파옥, 성명 미상 스님 사망	토벌대	1948.12.5
	본원사	조천읍 함덕리	법당 일부 소각, 불상과 불구 도난	무장대	1948.8
	수덕사	애월읍 광령리	사찰 전소	토벌대	1949.2
	수산사	애월읍 수산리	사찰 파옥, 주지 고정선 사망	토벌대	1949
	외곶절	조천읍 함덕리	사찰 전소, 주지 신희연 사망	토벌대	1948.11
	은수사	한경면 고산리	사찰 폐허, 주지 고인봉 수차례 투옥 후 지명수배 받고 일본으로 피신.	군경	1950
서귀포시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동	사찰 전소(재건 후 한국전쟁 때 다시 피해:1952년 2월 13일 군에 의해 제3숙영지로 이용되다가 1953년 9월 21일 해산되면서 파옥)	토벌대	1948.11
	용주사	서귀포시 호근동	불상과 탕화 제외하고 사찰 전소	토벌대	1948.11
	원만사	서귀포시 하원동	사찰 전소, 기거 중이던 승려 양홍기 사망	토벌대	1948.11
	월라사	서귀포시 신호동	사찰 파옥, 창건주 변옥희와 딸 사망	토벌대	1948.11
	호촌봉암자	서귀포시 하효동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1
	단산사	대정읍 인성리	사찰 일부 파옥, 주지 강기규 사망	토벌대	1948
	두수사	성산읍 신산리	사찰 일부 파옥	토벌대	1948.11
	선광사	남원읍 남원리	불상 1점 제외하고 사찰 파옥 및 소실	토벌대	1948.11
	봉주사	표선면 토산리	사찰 파옥	토벌대	1948.12

4·3 당시 제주불교의 피해실태는 사건이 종료된 후 복원되거나 이전되어 당

⁸ 한금순(2004) 「한국전쟁 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p121-139.

시 사찰의 내력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1940년대 후반까지 존립했던 대부분의 사찰의 행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인명피해도 사찰의 피해에 부수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가자나 기타 사찰과 관련된 총체적인 피해조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위의 사례만 보아도 제주불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제주불교계가 초토화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이유가 비단 산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피해원인을 크게 지리적 여건과 당시 제주불교계의 성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차례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앞서 언급한 산간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의 문제를 언급해보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된 35곳의 피해사찰을 산간과 해안지역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피해사찰 산간·해안지역 분류

분류	산간 소재 사찰	해안 소재 사찰
제주시	관음사, 백화사, 서관음사, 석굴암, 소림사, 용장사, 월정사, 고운사, 광룡사, 귀이사, 극락사, 금봉사, 금천사, 묘음사, 보광사, 수덕사, 외곶절	불탑사, 원당사, 대각사, 정광사, 고관사, 백양사북촌포교소, 본원사, 수산사, 은수사
서귀포시	법화사, 용주사, 원만사, 월라사, 호촌봉, 단산사, 두수사, 봉주사	선광사
합계	25	10

<표 2>의 분류에 따르면 산간은 제주시 17곳, 서귀포시 8곳이 위치해 있었으며, 해안의 경우는 제주시 9곳, 서귀포시 1곳이다. 여기서 해안에 위치한 사찰 중 대각사, 정광사의 경우는 4·3 당시 무장대 측 활동을 한 승려가 피해를 입은 사례로, 사찰전각이 전소되거나 파옥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해안은 8곳, 산간은 25곳이 된다. 이 분류만 보더라도 피해사찰이 산간에 주로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50여 곳의 사찰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승려 및 재가자 등의 인물조사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제반 상황이 파악되어야 당시 제주불교계의 전체 상황이 그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사찰의 지정학적 거점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교단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물질자원 뿐만 아니라 승려와 재가자들의 인적자원까지 대거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당시 제주불교의 성격이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개혁적인 불교운동을 펼쳤던 사상적 배경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근대 제주불교운동의 출발, 즉 민족의식을 끌어안고 시작된 근대 제주불교의 초기 활동에서부터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오라동 출신의 항일운동가 강창규와 김석운은 1892년과 1894년에 각각 출가하면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불교활동의 기틀을 잡는다. 이들은 이후 안봉려관과 함께 관음사와 법정사를 창건하고, 1909년 의병활동과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에 의해 펼쳐진 불교사상에는 민족사상이 투영되어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불교가 제도권 밖에서 제주민과 함께 명맥을 이어오며 품게 된 이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도민들의 염원과 함께 민족의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⁹

1910년대까지 항일투쟁의 모습으로 제주사회에 영향을 미친 제주불교운동의 흐름은 이후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활동으로 탈바꿈된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1920년대 야학운동과 1930년대 농촌계몽운동, 전통 한국불교의 회복운동, 그리고 1940년대 선농불교에 기초한 불교혁신운동 등이다.

이러한 근대 불교운동을 주도하다 4·3시기에 희생되는 승려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 몇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김석운 등이 중심이 된 항일활동, 이일선, 이세진, 원문상 등이 보여준 좌익 혹은 무장대 활동, 그리고 신홍연 등의 계몽활동 등이다.

그중 좌익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우선 이일선은 1947년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북초등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맡을 정도로 당시 제주사회의 핵심부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그는 이후 ‘3·1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공동의장¹⁰을 역임하며 좌익활동에 앞장선다.¹¹

그리고 이세진의 경우는 동북동생 고한수가 당시 선전부장을 역임한 좌익활동

⁹ 오성(2007) 「근대 제주불교 동향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위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학술세미나』 중문청년회의소, p2-10.

¹⁰ 제민일보4·3취재반(1994) 『4·3은 말한다』 1권, 전예원, p. 219, p. 259.

¹¹ 「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1. 10. 22일자)

「각종 사회단체 참가하고 民戰 성대리 결성」 『제주신보』 (1947. 2. 26)

가였다. 1947년 서관음사에서 이세진의 어머니인 김덕신의 환갑잔치가 열렸는데, 한림 옹포 포교당의 장연중 스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세진 스님 어머니가 이세진 스님 하나만 낳고 개가해 와서 5 남매를 낳았어. 그런데 그 형제가 모두 빨갱이였어요. 세진스님 아버지가 다른 동생 고씨가 선전부장이었다고 그이한테 물이 들은 것이죠. 그때 세진스님이 효자로 유명했는데 어머니 환갑잔치를 열었어요. 형제들 5 남매가 다 왔더군. 그런데 그 동생이 축사를 하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안하고 빨갱이 사상 선전만 하더군요.”¹²

가족의 좌익활동과 함께 이세진 본인도 1948년에 인민유격대장 이덕구와 함께 활동하며 ‘산왕’이라 불렸고, 도당사령부 수뇌부에 속해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승려로서 야학운동을 이끈 원문상은 예비검속 당시 2·7사건 적극가담자로 체포되어 사망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당시 제주불교계의 지도층 승려들로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청년승려들 역시 4·3으로 희생되는 공동 운명에 처하게 된다.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 승려 외에 이미 언급한 항일활동과 농촌운동을 이끈 김석윤, 신흥연, 이성봉 등 근대 불교운동을 주도했던 승려들이 4·3 시기에 대거 희생되었다. 4·3을 겪은 후 일본으로 건너간 조천만세운동의 독립운동가 김순탁의 딸 김동일의 경우는 1948년 겨울 제주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승려들의 피해를 전해 들었으며, 직접 고문을 받고 있던 승려 5명 정도를 목격했다고 한다.¹³ 이처럼 제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제주도민과 공동의 운명체로 4·3을 맞았던 제주불교계의 피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제주불교계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상의 내용을 좀더 보충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2 제주불교계의 피해사례

2.2.1 관음사

관음사는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4·3발발 당시부터 무장대의 주요길목이었고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¹⁴

¹² 장연중 구술(83세, 한림읍 옹포리 옹포포교당, 1997. 12, 필자 채록)

¹³ 김동일 구술(72세, 日本 東京都, 2005. 7, 필자 채록)

4·3이 본격화되기 전인 1949년 5월말에는 토벌대가 기도 중이던 스님을 끌어내어 마차 위에 몸을 묶고 물고문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3이 유혈사태로 치닫는 1948년 11월부터는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실시되었고 이후 1949년 1월 4일부터 실시된 대대적인 한라산 공습으로 관음사 일대는 치열한 격전지가 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토벌대는 1949년 2월 12일(음력 1월 15일) 돌연 관음사를 방화, 경내의 전각 일체를 전소시켰다. 관음사에 토벌대가 불을 놓는 순간 화창한 대낮인데도 갑자기 천둥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한다. 당시 불타던 관음사의 상황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진다.

"관음사가 불에 별장게 타오르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맑았던 하늘에 대같은 산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대웅전이 불에 타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300여년 된 목불에 불이 붙자 부처가 분노하였다. 목불상은 불에 타면서 분노하여 몸체가 격렬하게 떨리고 눈이 별장게 되어 번쩍번쩍 빛을 내더니만 '팽'하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폭발하였다. 하늘마저 격노하여 불을 붙인 토벌대에게 천벌을 내렸다.

"¹⁵

관음사를 방화한 후 그 잿더미 위에 3월 중순경 제2연대 소속 제2대대가 주둔하며 주변을 요새화하였다. 그리고 당시 관음사 주지였던 오이화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1950년 7월 10일 사망하게 된다.

2.2.2 월정사

월정사는 1948년 12월 토벌대에 의해 건물 5채가 소실되었고, 사찰 경내에 기거하던 승려 김덕수와 홍종대, 부정용 등이 토벌대에 끌려가 현 아라중학교 부근의 '박성내'에서 총살되었다.

월정사는 1909년 의병항쟁을 일으키고 관음사와 법정사 창건에 주된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김석윤이 창건한 사찰이다. 김석윤은 근대 제주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로, 1930년대에 근대시기 최초의 제주선원을 창설하였고,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에서는 고문을 맡아 제주불교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월정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김덕수는 김석윤의 속가아들이었다.

¹⁴ 제주도, 제주4·3연구소(2003) 『제주4·3유적 I』 제주도, p143-147.

¹⁵ 위의 『제주4·3유적 I』 p147, 재인용.

월정사는 그 이듬해인 1949년 2월에 남아있던 법당마저 토벌대에 의해 재차 전소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후 1949년 7월 역시 출가한 김석윤의 맏아들 김성수가 관음사포교당에서 사망하자 시름에 겨운 나날을 보내던 김석윤도 다음 달인 8월에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김석윤의 두 번째 아들인 김인수가 모든 뒷수습을 마친 그해 겨울 차가운 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월정사 창건에 기여했던 김석윤의 출가 가족들은 모두 이 시기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2.2.3 외꿀절

외꿀절은 1930년대 농촌계몽운동을 주창했던 함덕리에 위치한 사찰이었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주지 신흥연은 사찰 경내에서 밭을 일구며 마을주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다. 당시 함덕은 해안뿐만이 아니라 마을 일대에도 모래가 넓게 분포되어있어 타 지역에 비해 영농환경이 열악하였다. 신흥연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비파, 시금치, 무, 호배추 등과 같은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였고, 마을주민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외꿀절은 초등학교의 소풍장소로 이용될 정도로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사찰이었으며, 신흥연 역시 마을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던 승려였다. 그런데 1948년 11월경 함덕리를 비롯하여 조천면 일대에서 연일 자행되는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대규모 입산사태가 벌어졌고, 외꿀절의 신도들도 무장대에 가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낮에는 군인이, 밤에는 무장대가 찾아오는 이중생활을 해야 했는데, 신흥연은 배고픈 무장대를 위해 미리 솔마다 가득히 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혹 경찰이 오는 기척이 들리면 짬을 덮어 감추고는 변소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1948년 11월 중순경 외꿀절 법당 내에 은신해 있던 무장대 수십 명이 토벌대에 의해 발각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토벌대는 곧바로 신흥연을 법당에서 200미터 떨어진 밭으로 끌고 가 그곳의 유자나무에 몸을 묶고는 뒤따라온 마을 민보단원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민보단원들은 차마 신흥연을 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일제히 총성을 날렸다. 이에 격분한 토벌대는 민보단원들에게 다시 죽창을 쥐어주며 신흥연을 찌를 것을 강요했다. 결국 민보단원들은 울부짖으며 그를 죽창으로 찢러 사망케 하였는데, 이 일은 현재에도 함덕리 노인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어 오고 있다.¹⁶

2.2.4 금봉사

금봉사는 1930년대 승려교육 활동이 행해진 사찰이었다. 또한 주지 이성봉은 제주불교에 절실한 당면 과제는 민간신앙과 융화되어 변색돼버린 제주불교의 제 모습을 찾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1936년 제주의 주요 포교소에 법화경을 배포, 포교사들과 함께 순회강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금봉사가 피해를 입은 시기는 1948년 11월이다. 하도리 창흥동 마을로 소개되어 피신하고 있던 이성봉은 가끔씩 금봉사를 왕래하며 도량을 살펴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창흥동은 금봉사와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11월 21일, 이성봉이 금봉사에 있을 때 태우리(말을 지키는 목동)가 지나가는 토벌대를 보고 놀라 금봉사로 도망오게 되었다. 토벌대는 태우리를 쫓아 금봉사로 쳐들어왔고 주지 이성봉에게 태우리의 행방과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성봉이 연신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밖으로 끌어내어 7~8발의 총을 쏘았다.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자 수십 발의 총을 난사하여 결국 그 자리에서 이성봉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

토벌대는 총살 후 절에 불을 지르고 떠나갔다. 불은 요사채를 완전히 태워 없앴으나 법당은 다행히 반 정도 타다가 스스로 불길이 수그러들었다. 며칠 후 이성봉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얼마나 총을 쏘아댔는지 시신의 형체가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방석을 뜯어내어 그 솜으로 총구멍을 모두 막았다고 한다.

2.2.5 본원사

<표 1>에서 밝힌 가해자의 대부분은 군경으로 구성된 토벌대이고, 그중 함덕본원사(本願寺)의 경우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 사례이다. 본원사는 토벌대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고 주지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외팔절과 한 마을에 위치해 있던 사찰이나 피해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원사는 1937년 일본불교 종파인 정토진종 대곡파(淨土眞宗 大谷派) 포교당으로 창건된 곳이었다. 본원사의 주지는 김원종이었는데, 당시 아들 김병택이 외도지서 주임을 맡고 있었고 이후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산하 특별수사대 제1반장

16 신홍연의 죽음은 곧바로 초천리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무장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밤에 몰래 집 담벼락 너머로 편지를 묶어놓은 돌맹이를 던져 가족들에게 알린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토벌대가 떠난 이후 무장대가 신홍연의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당시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한다. 신홍연은 고통을 참으며 8~9시간 동안 가부좌를 한 채 엎들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을 지켜본 무장대는 신홍연의 시신을 고구마 줄기로 감싸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았고, 대신 가족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외팔절은 그 후 11월 20일경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 이때 외팔절과 인접해 있는 대흘리도 함께 방화되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변을 겪었다.

을 역임할 정도로 위세가 높았었다.

이런 관계로 본원사는 무장대의 타격대상이 되어 몇 차례 방화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던 1948년 8월경 다시 본원사를 기습한 무장대는 방화를 포기하고 대신 불상과 불구를 훔쳐가게 된다. 무장대는 이후 토벌대에 의해 불잡히게 되는데, 불상과 불구는 그들의 은신처였던 인근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무장대는 동굴에서 불상을 모셔놓고 예불을 드렸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⁷

2.2.6 기타

이외에도 제주불교혁신운동을 주창했던 제주강원의 강주 이세진은 1949년 관음사포교당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간 뒤 총살되었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일선과 원문상은 예비검속으로 불잡혀 사망하게 된다.

혁신운동을 펼쳤던 서관음사 역시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고, 인접해있던 용장사도 주지 백인수가 1949년 1월 도평리 마을집단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후 사찰도 함께 전소되었다. 백인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약 3개월 후, 스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시신은 모두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한다.¹⁸

IV. 맺음말

제주불교는 근대 초 법정사 항일운동을 필두로 1940년대까지 야학운동, 농촌 계몽운동, 법화산림 포교운동, 제주불교 통일운동, 전통 한국불교 회복운동, 불교혁신운동 등 다양한 불교운동을 펼치며 제주민중의 삶 속에 탄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4·3을 거치고 난후의 제주불교는 근현대 제주불교를 대표하는 주역들이 대부분 희생되고 운동의 근거지였던 사찰들이 불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운동의 맥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은 근현대 제주불교의 정신이 4·3에 의해 파괴되고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주불교의 분열과 독자성을 상실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¹⁷ 김병석(76세)·김춘선(73세) 구술(구좌읍 함덕리, 2003. 7, 필자 채록).

¹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p426. 홍순녀, (75세, 제주시 도평동 홍릉사, 2003. 10, 필자채록). 백인수의 부인은 사건 직후 당시 경찰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여 재가하게 된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선포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령은 해안가에 위치한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찰이 해당되는 문구이다. 그렇다고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이 피해를 면한 것 또한 아니었다. 관음사, 수덕사 등 산간에 위치한 사찰이나 선광사, 북촌포교소 등과 같은 해안가의 사찰이나 모두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3발발 와중에 불교계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가 산간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제주도 민과 이해를 같이 한 밀착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4·3으로 희생된 승려들의 성향을 보면, 항일운동가, 좌익 혹은 무장대 활동, 야학운동가, 농촌계몽운동가 등이다. 이것은 당시 제주불교계가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항일운동 또는 계몽운동의 경우 도민과 제주사회의 문제를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렇듯 4·3 당시 불교계 피해의 주된 원인은 제주불교가 갖는 민중적 성격에 있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제주불교계의 피해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승만 정권의 불교에 대한 정책과 한국전쟁 당시 타 지역의 불교 피해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예로, 전라도의 경우 대부분의 사찰이 한국군경에 의해 고의적으로 불태워졌음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4·3시기 제주불교계의 피해를 조심스럽게 들춰낸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구체적인 불교계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4·3의 폭넓은 진실규명과 함께, 근현대 제주불교사에 대한 재조명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근대시기 제주불교 내의 자치와 통일을 이뤄냈던, 또한 제주도민과 함께 숨쉬며 다양한 개혁운동을 창출해냈던 선인들의 이타적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4·3사건 이후 분열과 갈등의 깊은 골이 패인 제주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불교청년단(1945) 「조선불교혁신 전국승려대회 회의록」 『법계』
- 「각종 사회단체 참가하고 民戰 성대리 결성」 『제주신보』 (1947. 2. 26.)
- 「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1. 10. 22.)
- 김광식(2000) 「해방 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 강성현(2002)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주도(2003) 『제주4·3유적 I』 제주도.
- 한금실(2004) 「사찰연혁과 피해상황」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한금순(2004) 「한국전쟁 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오성(2006) 「제7장 종교/ 제2절 불교」 『제주도지』 6, 제주도.
- 한금실(2006) 「이세진(1910~1949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오성(2007) 「근대 제주불교의 동향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위치」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 학술세미나』 중문청년회의소.

한금실(Han, Geum-Sil)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사 전공, 박사과정 1년차

주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77-8번지

TEL: 018-676-1202

E-mail: budiwoman@hanmail.net

접 수 일: 2007년 12월 25일 / 심사개시: 2008년 1월 7일

심사완료: 2008년 1월 29일 / 게재결정: 2008년 2월 28일